

2021년 11월 14일 “성경의 큰 숲 보기(55) 빌레몬서: 새로운 사랑의 길”
문 1:10-14

바울의 옥중서신 빌레몬서에는 용서에 관한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 구성 및 배경

- (1) 1:1-7 인사 및 빌레몬에 대한 칭찬
- (2) 1:8-22 부탁과 권면

<배경>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빌레몬은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교회를 개척할 때 도우며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이야기하던 중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시중 받곤 했던 바울은 빌레몬에게 용서를 요청하는 본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서신은 신약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2] 바울의 칭찬과 부탁

4-7 절.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합니다.

6 절. ‘그대의 믿음의 사귀이 더욱 깊어져서’ 사귀(친교, 코이노니아)이란 성도 간에 교통하며 협력하는 아름다운 관계양식을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이런 사귀를 추구하는 사람임을 믿으며 오네시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합니다(8-10 절).

바울의 방식을 요약하면,

첫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굳이 보내는 이유는 강요가 아닌 자원함으로 용서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14 절). 용서는 쌍방이 직접 만나야 성사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세상에서 정해진 주인-종 의 관계를 넘어 바울 자신과 같이 형제로 받아 주길 원합니다(15-17 절).

여기서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믿음의 사귀를 열어 주기 위해 중보자로서 서 있습니다. 한 손으로 빌레몬을, 다른 손으로는 오네시모를 붙들고 있는 그는 죄인의 처참한 모습으로 그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믿음의 코이노니아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중첩됩니다.

[3] 복음의 진수: 용서하고 용서받다

쌍방 간에 용서하고 받는 일은 직접 이루어져야 용서의 실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오해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을 때 그는 너그러워서 예전과 동일하게 나를 대해주기 때문에 용서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빌지 않는 한 용서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나에게 잘못된 사람이 용서를 빌지 않는데,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마음이지만 이 또한 용서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를 빌거나 하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행위에 저항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이는 용서할 일도 받을 일도 없는 삶이 최고라는 신념을 갖는데 이것은 성경적 용서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믿음의 사권이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용기를 가지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선포해주어 진정한 코이노니아, 새로운 형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랑의 길로서 복음이 열어주는 축복입니다.

마 16:18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 서로 용서하면 하늘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이 이 땅에 채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요 20:22 후-23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령의 시대에 제자들이 얻은 위대한 권세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랑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용서는 마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용서의 마음을 가꾸는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서하거나, 용서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귀하게 보시는 성령께서 도우셔서 주님의 때에 용서의 축복을 경험적으로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맺음>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체험이 풍성해져서 새로운 사랑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봅시다>

1.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또한 살면서 사람 간에 용서 받고 용서한 기쁨의 체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내가 용서를 빌어도 상대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내게 용서를 비는데 용서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